행복도시 이야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행정중심복합도시

Vol 198 2023. 9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행복청, 김형렬 신임청장 취임

김형렬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8월 24일 일자로 행복청 신임 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1986년 기술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경북 포항 출생으로서울 중앙고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와 일본 동경대에서 공학계 연구과 박사를 취득한 엘리트 관료입니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대변인, 국토정책관, 수자원 정책국장, 건설정책국장과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김 청장은 폭넓은 시야와 탁월한 정책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치밀한 일처리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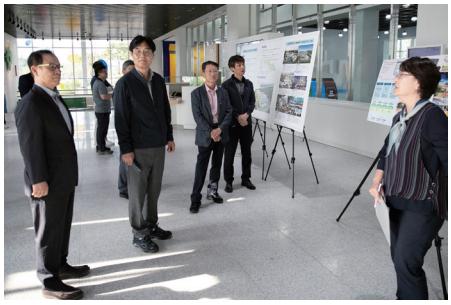
신임 김형렬 청장은 “그 간의 다양한 국토교통분야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을지연습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약식으로 취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 행복도시 주요시설물 및 건설 추진상황 점검

김형렬 행복청장은 9월 12일(화), 14일(목)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 공동캠퍼스 조성 공사 현장 등 행복도시 전 생활권 주요 시설물과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준비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밀마루 전망대



국립어린이박물관

스마트기술에도 철학이 있다… 행복도시가 선보이는 '인본주의 스마트시티'

도시계획단계부터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 목표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똑똑하고 따뜻한' 도시로 진화 중

현대 인류를 지칭하는 단어 중 '호모 우루바노스(Homo urbanus)'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UN산하기구 UN해비타트의 '2022 세계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8%가 도시지역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을 미래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최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 주거, 시설 등 생활 전반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란 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위기 등 각종 환경문제, 인구절벽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과거에는 없었던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도시는 더 이상 똑똑하기만 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기술에도 '사람 중심'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휴머니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똑똑하고 따뜻한' 스마트시티가 국내 조성 중입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전 부문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도시 건설을 시작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 중인 '사람 중심 미래도시,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현재 1,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3단계 사업 2차 설계용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5가지 테마형 스마트시티, 단계별 조성 '착착'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음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행복도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플랫폼 도시'로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도시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도시'로 조성됩니다. 셋째, '연결형 도시'로서 아날로그 도시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넷째, '자율지능 도시'로서 도시에 인공지능(AI) 기능을 적용하여 각종 첨단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형 커뮤니티 도시'로서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들이 활발히 소통하고 또 소외계층은 보호하는 공동체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스마트시티 패러다임 구현을 위해 행복청은 2013년부터 도시통합정보센터와 교통·방범 등 기초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이어 차량방범 및 산불감시, 실시간 신호제어 등 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안전 및 생활편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2단계 사업을 2019년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 사업, 추진궤도 '안착'

3단계 사업은 교통, 방범, 환경, 생활 등 기존 서비스는 고도화하고, 나아가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능형 방범 서비스, 초정밀 BIS, 안심이 서비스' 등이 꼽힙니다.

지능형 방범 서비스의 경우는 다목적 CCTV 관제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범죄예방을 위한 개체식별 및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쓰러지는 위급상황 등을 인식해 긴급대응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초정밀 BIS는 1초, 1m 단위로 BRT(간선급행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앱으로 제공하며, 버스를 타고 내리는 정류장 세 구간 전부터 도착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안심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비상호출 시 위험상황을 실시간 관찰하고 112와 119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알림 서비스와도 연계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거버넌스형 스마트시티' 구현

행복도시는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형 스마트시티'라는 점에서도 특별합니다. 단계별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함께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도시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정하는 리빙랩(living lab)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혁신모델인 행복도시 리빙랩 1차 사업은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교차로 사각지대 사고예방 서비스, 야간 보행자 안전 서비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구축하여 현재 일부 생활권에 시행 중입니다.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운행규칙 미준수 차량이 8.5%에서 13%로 감소하였고,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리빙랩 2차 사업으로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스마트 재활용 솔루션, 스마트폴'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선버스 정류장을 반밀폐형으로 개량 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각종 편의시설과 방범 및 통합제어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스마트 재활용'은 QR 코드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캔·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행복도시에서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폴'은 방범 CCTV, 비상벨, 공공 와이파이, 스마트 그늘막 기능 등을 결합한 것으로, 사업 생활권 내 통행량이 많은 5개소에 설치됩니다. 이들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만족도가 높으면 추후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획득, 세계 제일 스마트시티 도약 발판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획득, 세계 제일 스마트시티 도약 발판

행복도시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시민체감형 서비스 제공, 시민주도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실적을 인정받아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마련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운영모델'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 스마트시티 성숙도를 종합 평가하는 유일한 국제표준으로서 '전략관리, 시민중심서비스, 기술·디지털자산관리, 시민이익'의 4개 분야 22개 항목을 심사합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성숙도시(level3)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에도 역시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선도도시(level 4)를 획득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시티 탁월도시(level 5) 인증을 받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한 인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김형렬 행복청장은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 다.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조감도

바로타 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세종에는 서울 지하철보다 편리한 '바로타'가 있다네!!

친구여, 오랜만이야. 나는 그대가 걱정하는 것보다 세종에서 잘 지내고 있어. 헤어지기 전에 이야기 나눈 거 기억하나? 서울에서 누리던 편안함으로 더 많이 세종시가 불편하게 느껴질까 두렵다고 자네에게 말했었지. 알다시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하철을 이용했었어. 정확히 말하면 내가 10살 되던 해에 초록색 지하철 2호선이 개통했었지. 그 시절 학업 때문에 시간을 쪼개가며 학교를 오가야 했었어. 그래서 ①정시 도착하는 지하철은 나의 필수 애마였다네. 그러다 20대가 되었을 때는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승객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②안전을 위해 스크 린도어가 설치되기도 했구. 30대 때는, 준비하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아침 저녁 지하철에서 ③무료로 동영상을 들을 수 있었지.

이렇게 편리함에 젖어 있던 내가 40대가 되어 세종시로 이직하게 되니까 지하철이 없어 ①새 직장에 늦지 않을까, ②오가는 차 때문에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③승차 중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진 건 당연했어. 헌데 괜한 걱정이었어. 세종시에는 '바로타'가 있다네. 간선급행버스이거든.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해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해당한다네. 2호선이 한강을 가운데 놓고 순환하잖아. 마찬가지야. 금강을 중심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순환한다네. 내가 충남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세종시청에 가서 여권을 받을 수 있어. 가끔 심난할 때 30분 동안 멍하니 세종시를 한바퀴 돌아보며 기분을 추스릴 수 있지.

'바로타'는 전용차로를 가지고 있어. 버스 전용차선을 넘어 간선급행버스만 오가는 차로가 있다는 말이야. 이 때문에 회사를 갈 때나 예술의 전당으로 연극을 보러 갈 때에도 ①정시에 도착할 수 있어.

행복청 김흥진 차장, 추석맞이 원수산 둘레길 현장 점검

김흥진 행복청 차장(오른쪽 두번째)은 9월 22일(금) 행복도시 원수산 둘레길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방문하는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둘레길 조성 일정 등을 관리하였으며, 둘레길 조성 중에 주민들이 기존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 추석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김형렬 행복청장은 조용구 노조위원장과 함께 9월 22일 사회복지시설인 전의요셉의집을 방문하여 시설 직원 및 요양자를 격려하고, 소정의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시설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쉽게 갈 수 있어. 없은 서울 지하철 1호선하고 비슷해. 경기도·인천을 잇는 것처럼 청주시와 대전시로 갈 수 있어. 고속철도를 타러 오송을 갈 때나, 성심당에 빵을 사러 갈 때도 계획 했던 바로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지. B2·B4는 서울 지하철 3·4호선하고 비슷해. 분당선으로 환승하는 것처럼 대전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어. 모든 간선급행버스는 '정시성'을 갖고 있어 버스가 막혀 늦는다는 건 세종시에서는 통하지 않아.

서울 지하철처럼 세종시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에도 스크린 도어가 도입되어 있어. '바로타'가 도착하고 기사님이 정류장 스크린도어를 열어 주어야 버스에 탈 수 있지. 장난기 많은 우리 아이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이 근처로 들어올 수 없으니 우리 가족은 ②안전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또한 말이야. 정류장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듯한 냉난방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위치정보 표시서비스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바로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평승하차 기능을 통해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정류장에서 버스로, 그리고 다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 안 했지? 요즘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어. '바로타'에서 와이파이가 되니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거든. 전기굴절버스가 도입되어 넓고 길어진 차체때문에 지하철과 유사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나의 건망증으로 충전하지 못한 나의 태블릿도 바로 전원을 연결하여 버스 안에서 사용할수 있어. 한마디로 ③승차 중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네. 더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타'를 이용할 수도 있어. 화석 연료가 덜 소모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탄소중립적이기도 하고, 비용이 절약 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기도 한 거야.

세종시 '바로타'는 정시성, 안정성, 그리고 편리성은 서울 지하철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아. 내가 세종시에서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 남은 60년 동안 어떤 편리함이 추가될까 기대되기도 하다네. 지금도 무인 간선급행버스가 시험 운행을 하고 있고, 작은 미술관에서 작가의 생각에 함께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말야. 불편함도 남아있기는 하다네. 아직은 다른 차량과 만나게 되는 교차로가 존재해서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거든. 그렇지만 말이야. 지하철과 비교해 보면 반정도 소요되는 건설기간과 1/10의 건설비용은 굉장한 거 같아. 다른 인프라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든. 우리가 누릴수 있는 복지가 많아질 수 있는 셈이지. 한번 놀러 오게나. 내가 말한 '바로타'를 함께 타보자구. 틀림없이 자네도 세종에 살고 싶어질거야.

이만 줄이겠네.

세종에서 보냄

에너지비용 42백만원·온실가스 배출 65%↓ ‘제로에너지 아파트’ 그것이 알고 싶다

- 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ZEB 인증(최소 5등급) 의무
- 행복도시,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위해 ZEB 3등급 공동주택 건설 중
- 건축물 에너지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 선도

올여름 전 세계는 기록적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재해에 가까운 기상이변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7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3년 여름철(6~8월)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 23.7도보다 1도 높은 24.7도를 기록, 관측사상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비는 평년보다 291.2mm 더 내리면서 연평균 강수량의 78%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이 같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입니다. 비단 전문가뿐 아니라 이제는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필요량이 연간 약 46백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무엇보다 공동주택에서 ‘제로에너지화’를 앞당겨야만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건축에도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도시가 있어 이목이 집중됩니다. 바로 세종시 일원에 조성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특히 6-3생활권(산울동) M1블록을 제로에너지 3등급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착공하여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선택 아닌 필수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이란, 고성능 단열재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여 소비는 줄이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소요를 충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충족 기준은 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건축물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5등급, 2030년에는 3등급 수준을 획득하도록 했고, 민간건축물 중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4년부터 5등급 이상을 인증 받도록 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은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구분됩니다. 20% 이상~40% 미만이 5등급, 60%이상~80%미만이 3등급, 최고 1등급은 100%입니다. 현재 행복도시에 건설 중인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에너지효율 1^{+++}등급, 에너지자립률 66.9%로 3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LH가 짓는 아파트 중 최초 사례입니다.

행복도시는 이미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표방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 1월 1-1생활권(고운동) B12블록에 조성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가

대표적입니다. 전체 60세대로 이루어진 해당 단지는 고성능 단열, 고효율 창호와 유리, 고기밀 시공 등 패시브 기술과 태양광발전 등 액티브 기술을 활용하여 세대당 에너지비용을 월 7천원 수준으로 낮추면서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성공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1생활권 B10 · 11블록에 약 78세대의 2차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친환경 녹색건축물은 계속 진화하는 중"이라며 "특히 6-3생활권 M1블록 공동주택은 그간의 성과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한 '친환경 에너지주택'의 결정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있는 에너지 못 나가게 '패시브'+필요 에너지는 직접 만드는 '액티브'

6-3생활권 M1블록 공동주택은 아파트 2개 동과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0층에 238세대 규모입니다. 기존 기준보다 단열성능은 22%, 기밀성능은 11% 높여 에너지가 허비될 틈새를 없앴습니다. 여기에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설비도 갖출 예정입니다. 제로에너지 패시 (Passive) 기술과 액티브(Active)기술의 결합으로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패시브 기술은 단열재 성능 개선,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및 기밀성능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소요를 최소화합니다. 세대 간 벽, 세대 내 천장과 바닥에 30mm 경질 우레탄도 시범 적용해 단열성능 개선효과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비롯해 낮 시간 조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집광·채광 블라인드 적용 등 차세대 패시브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액티브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설비를 통해 아파트 에너지소요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급합니다. 지붕 및 측벽에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연중 약 10~15℃를 유지하는 지중열은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과 급탕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아파트의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50.4kwh/㎡, 현재 신축 공동주택의 법적기준인 120kwh/㎡에 비하면 무려 42% 수준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신축 아파트 대비 연간 42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신축주택의 약 35% 수준인 연간 10.2kg/㎡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대 당 연간 약 690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치로, 30년생 소나무 105그루의 식재효과에 필적합니다.

'누구나 해야 할 일, 하지만 쉽지 않은 일', 행복도시가 앞장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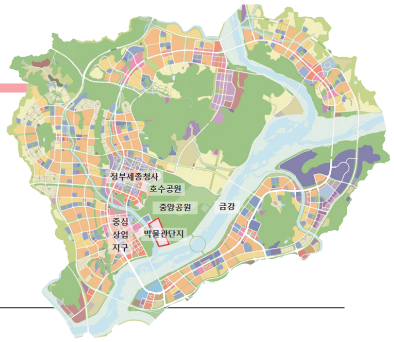
사실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상한의4~8%에달하는비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ZEB 등급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용적률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이 비례한다는 아이러니도 해결해야하는 숙제입니다. 여기에 ZEB 인증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청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적극적입니다.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 국가목표보다 훨씬 빠른 행보입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답합니다.

"2030년이 되면 공공에서 짓는 모든 아파트는 ZEB 3등급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에서 이를 선행적으로 완수하여 2050년 제로에너지 1등급 주택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미래세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탄소중립시대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행복도시 6-3生 행복주택(M1) 조감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디딤돌, '국립박물관단지'

-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다양한 콘텐츠의 국립문화시설 집약
- 올 12월 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개 박물관, 2개 통합시설 개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대단위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이 한창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박물관'이 오는 12월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6월 전시물 제작 및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박물관 운영 준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박물관의 시설과 전시를 보완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새로운 문화본산으로 조성되는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이 대규모 국립박물관단지가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단지나 호주의 캔버라 국립박물관지구, 캐나다의 오타와 국립박물관지구 등과 함께 세계적인 박물관단지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국내외 이목이 집중됩니다.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총면적은 약 20만㎡. 그 중 1구역 7만 5천㎡에는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과 통합지원센터, 통합수장고 등 5개 개별 박물관과 2개 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나머지 2구역 건립시설은 현재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보고 듣고 만지며 즐기는 '오감만족' 입체 전시

1구역에서 첫 삽을 뜬 곳은 박물관단지 주출입구 옆에 위치한 어린이박물관과 통합운영지원센터를 묶은 '어린이영역'입니다. 2016년에 시작한 이 영역의 건립사업은 올해 2월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의와 공감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공간을 지향하는 어린이박물관은 상상 가득한 공간으로 꾸려집니다. 어린이의 발달 특성과 흥미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형 체험전시와 박물관 곳곳에 만지거나 앉을 수 있는 현대미술 작품이 어우러져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만들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네 가지를 소주제로 다양한 놀이터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어린이박물관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겁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들었다"며, "아이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연 속 유쾌하고 재미있는 곳일 것 같다"고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역사를 짓는 '한 올 한 올'의 기록, 각기 다른 주제와 빛깔의 박물관들

2026년 개관 예정인 도시건축박물관은 '삶을 짓다'를 주제로, 195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도시건축의 60년 역사가 전시됩니다. 발코니에 실제 크기의 건축물 외피 조각을 전시물로 활용하고, 건축 부자재 설치 등을 통해 6.25라는 황폐한 전쟁터에서 이제 세계 속으뜸으로 나아가는 도시와 건축의 발전과정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디자인박물관은 인간의 삶과 디자인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입체적 회랑과 마당을 통해 자연과 길,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우리네 생활 속 크고 작은 디자인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2027년 개관 예정입니다.

한편, 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국보, 보물,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 아날로그 문화유산을 디지털 형태로 재구성하여 관람객들에게 '하나의 완결된 경험'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됩니다. 역사의 가치를 3D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으로 체화할 수 있는 곳이 새로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북측 건물 외벽에 재활용 스마트폰 기반으로 꾸려지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가 주목할 만합니다. 2027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 개관 예정인 국가기록박물관은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박물관은 기록유산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법의 전시연출과 관람객 체험형 이벤트 등을 통해 기록보존에 대한 국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의 조화,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 플랜'

2016년 국제공모로 선정된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 플랜'이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조화'에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주변 자연 속 어우러진 박물관단지'라는 디자인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의 궁궐과 마당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여 단순하지만 다양한 공간을 연출'하겠다는 것입니다.

행복도시 중앙 도심지에 자리한 국립박물관단지의 대지는 겹겹이 쌓인 산과 투명하게 비치는 푸른 강을 배경으로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여타 문화시설이 강줄기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된 매우 흥미로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터 플랜 수립 시 '자연과의 연계, 수려한 도시미관과의 대응, 공원과 광장과의 연결'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립박물관단지의 통합된 정체성은 개별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관심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즐기며,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 것"이라며 "특히 올해 개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형 전시공간을 선보이게 될 어린이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애독자 코너

행복이와 한글교시(9교시)

■ '청취률'과 '청취율'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프로그램의 청취률이 높다. (X)
- 프로그램의 청취율이 높다. (O)

■ '외골수'와 '외곬수'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그는 한 길밖에 모르는 외곬수이다. (X)
- 그는 한 길밖에 모르는 외골수이다. (O)

숙제 코너

* 7교시 숙제 코너 정답

1번 : 우리는 그럼 내일 봬요
2번 : 너희 둘이 사귀어?

① '점유율'과 '점유률'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점유률 1위를 달성했다.( )
-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

② '꺼슬꺼슬하다'와 '꺼실꺼실하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손등이 꺼실꺼실하다.( )
- 손등이 꺼슬꺼슬하다.( )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아래의 사진은 일반적인 노선과는 별도로 전용 주행로와 전용 차량을 갖추어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의미하며, 현재 세종, 대전, 청주와 연결해주는 6개의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숙제 O, X 및 빈칸채우기 정답은 행복청 대변인실 naaccadmin@korea.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퀴즈의 정답자 선착순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기고문

미래가 열리는 '행복도시 열린공간'

김흥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완화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시작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징 중 하나가 '환상형 도시구조'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리모양의 대중교통도로를 중심으로 행정, 교육, 의료 등 6대 주요기능과 22개 기초생활권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도시의 철학도 함께 담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환상형 도시 중심부는 시민들이 공유하며 휴식하는 공간과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유보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구상을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도시건설에 착수한 지 17년이 됩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을 마치고 인구유입이나 건설공정이 도시완성 목표대비 60%를 넘고 있는 2023년 9월 현재, 인구의 70%가 간선급행버스(BRT)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 개발이 진행되었고, 도시중심부는 공원을 제외한 계획적 개발이 유보되어 당초의 환상형 도시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도시건설 3단계 중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행복도시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 것은 국회세종의사당(2021.10월, 국회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2022.6월, 행복도시법)이라는 양대 국가중추시설 설치결정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한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는 당초 환상형 도시구조의 중심부로서, 유보지 성격으로 남겨뒀던 세종동 일원에 새로운 기능이 주어진 셈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부터 행복도시 최상위 법정계획인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전면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변경의 핵심은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로 명시하고, 국가중추시설이 입지하는 도시 중심부를 '열린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상형 도시구조의 정체성은 어떻게 새로 정의하고, 또 행정수도를 완성하게 될 '열린공간'의 조성과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몰, 호주 캔버라의 트라이앵글, 캐나다 오타와의 팔리아멘트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공원 속에 국회, 행정부 수반 및 정부부처가 상호 인접하여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열린공간 또한 국립수목원,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와 연계하여 국가 입법·행정·문화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효율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가적 관리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행복도시법은 도시건설 방법과 절차에 한정되어 있어 도시가 단계적으로 완성되어감에 따라 도시 관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현행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주요기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계획과 개발, 관리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의 경우와 같이 건설완료 이후를 대비한 추가 입법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앞으로의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되어야 합니다. 각종 업무, 주거 등 국가중추시설에 필요한 기능은 환상형 개발축 도시 6대 기능을 통해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원수·전월산으로부터 중앙공원을 거쳐 금강에 이르는 생태경관축 또한 열린공간 내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 건축에 앞서 열린공간 일대를 아우르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선행하여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행복도시 '열린공간'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앞으로 발전가능성과 미래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행복청은 '열린공간'에 대한 조성 기본방향이 포함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연내 완료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통합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의 중심부 '열린공간'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시민들을 넘어 전 국민,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행복청, 해외 신수도 사업 지원 KOICA ODA사업으로 추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 제안사업 공모 1차 심사 통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공모 결과, 정부부처 제안사업(프로젝트) 및 글로벌 연수사업이 공모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예비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로,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정부부처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제안하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입니다.

행복청 정부부처 제안사업은 '인니 신수도 스마트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스터플랜 및 시범 건립'으로 인니 신수도지역 정부핵심구역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약 2,200만 달러가 투입되며, 행복청은 복합커뮤니티 건설경험 노하우와 운영을 바탕으로 주민 복지시설 세부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건립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연수사업은, '다국가(인도네시아·몽골·이집트 등) 수도이전 및 개발사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25년부터 3년간 추진되며 인도네시아, 몽골, 이집트 등에 행복도시 조성경험 및 기술 전수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예비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계획을 작성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제출하면, 2024년 상반기에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의 인구과밀, 교통체증,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이전을 목표로 수도이전을 추진중이고, 행복도시 조성 우수 사례중 행복청이 제안한 복합커뮤니티 시범건립사업 기술이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수도이전 건설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청 대외협력팀장은 "이번 예비조사 대상 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행복청이 처음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사례로서, 국제협력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도록 본 사업 확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제5회 미술작품 초대전

- '종과 종이 만날 때' 미술작품 초대전 개최, 온라인 미술전시관도 오픈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미술전시관에 세종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미술전시관(갤러리)에서 지난 9월 18일(월)부터 '종과 종이 만날 때의, An Unexpected Journey'초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15일(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동안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을 통해 전시 공간이 부족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시 공간을 제공해왔으며, 체육관을 이용하는 청사 공무원과 세종시민을 위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벌써 5번째 전시회로 한국화가 이채론 작가와 서양화가 이은지 작가가 '종과 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결합하여 경계와 형식을 해체한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합니다.

해당 전시는 '온라인 미술관'에서도 실시간 관람이 가능하며,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전시했던 기존 작품들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미술관 :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홈페이지(www.sjcs-sporex.co.kr)를 새롭게 단장하여 만든 실시간 관람이 가능한 온라인 미술전시관입니다.

체육관을 방문한 한 시민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은 체육활동은 물론 미술작품 감상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늘 기대되는 공간이다."라고 방문 소감을 밝혔으며, 행복청 김은영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이 시민들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산림 쉽고 재미있는 레저스포츠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산사태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 buykfesta.org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2023.8.30 ~ 9.27

동행축제 홍보모델 레베런스

중소벤처기업부 | SBDC 중소기업유통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이용 시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지하주차장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지하계단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차량 이용자

차량침수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지하차도 진입 금지

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세월교(잠수교) 횡단 금지

교량에 물이 월류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공동주택 등 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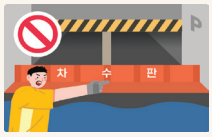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호우 시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대피 안내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 안내, 진입 금지

행복도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안전속도 사랑의 속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 SNS 채널

-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sejong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

발행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0-3094 **www.naacc.go.kr**

디자인·제작_(주)다원기획
T. 044-865-8115